

아랍에미리트(UAE)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2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I.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G D P	2,406억 달러(2008년)
인구	5.6백만 명(2008년)	1인당 GDP	42,958 달러(2008년)
정치체제	7개 토후국 연방 절대군주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UAE Dirham(Dh)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67(2008년)

- 아랍에미리트(UAE)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한 걸프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Abu Dhabi, Dubai, Ajman, Fujairah, Ras al-Khaimah, Sharjah 및 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임.
- 세계 5위의 석유(매장량 980억 배럴) 및 세계 5위의 천연가스(매장량 213조 입방피트)를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관광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非석유산업의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게는 제2위의 원유 수입대상국이자 중동 지역 제1위의 수출대상국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제성장률	9.7	8.2	9.4	7.6	7.7
재정수지/GDP	-0.4	8.1	11.6	14.2	12.4
소비자물가상승률	7.0	12.5	13.5	13.3	14.0

자료: IMF, EIU

□ 견실한 경제성장세 유지

- 2004~07년 UAE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건설 및 관광산업을 중심으로한 非석유산업의 빠른 성장,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평균 8.7%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부 은행의 금융 손실, 증시 폭락 및 국제유가 하락세에 시달렸으나, 수출 호조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조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7.7%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2009년에는 OPEC의 감산결정(150만 b/d) 및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 수입이 감소하고, 세계 경기침체 악화로 관광 및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은 0.9%로 둔화될 전망이다.

□ 재정수지 흑자폭 확대

- 재정수지는 2005년 흑자 전환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정부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대규모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GDP 대비 12.4%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

-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재정수입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적자전환이 예상됨.

□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는 오일머니 유입 확대에 따른 유동성 증가, 디르함(Dirham)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민간 부문의 임금 인상,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4.0%를 기록하였음.
- 2009~10년에는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식료품 및 상품가격 하락으로 소비자물가가 5~6%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나, 동국정부의 정책이 아직까지도 물가안정이 아닌 고도성장을 겨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 인플레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UAE의 통화 디르함은 미 달러에 대한 페그제를 시행중(3.67Dh/\$1 고정환율 적용)

2. 경제 구조 · 정책

[구조적 취약성]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 UAE 정부의 산업다각화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기준 석유부문이 총 GDP의 23%, 총 수출의 46%, 재정수입의 74%를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산업별 GDP 구성비('07년 기준): 석유·가스(35%), 제조업 (13%), 서비스업

(11%), 건설업(8%), 부동산(8%), 농업(1.8%), 기타(23.2%)

□ 전력 수요 급증으로 공급부족 위기 직면

- 동국은 건설업 및 에너지 집약적 산업(알루미늄, 석유화학 등)의 빠른 성장, 연평균 6.7%에 달하는 높은 인구증가율 등의 영향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동국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10%씩 증가하여, 2007년 13,224MW 수준에서 2015년 32,814MW, 2020년에는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40,858MW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심각한 전력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 UAE 정부가 2007년 에너지 기업 토탈(Total) 등 프랑스 기업과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핵 에너지 개발협력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약 1억 달러를 투자하여 '핵 에너지 개발 추진기구' 설립을 결정하는 등 원자력발전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개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개발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역별 전력 수요 증가율('07년 기준): 두바이(16%), 아부다비(10%), 샤자(7%) 등

□ 자국민 노동력 부족

- 동국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취업인구의 약 90%를 인도, 파키스탄, 아시아(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집트, 이란 등의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음.
- 외국인이 총 노동인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외국인 유입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이 6.7%에 이르는 등 기록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 과중한 외국인 비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 UAE의 실업률은 1%대로 낮은 편이나, 높은 외국인 의존도로 인해 자국민의 실업률은 6%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바이어 신용조사가 어려운 지역

- 동국은 법인세는 물론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없고, 대부분의 개인 기업이 비공개 기업이므로 재무제표를 포함한 영업실적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바이어들의 재무 상태나 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상존함.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동국은 세계 5위의 석유 매장량(980억 배럴, '07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일산량인 249만 배럴로 가정할 때, 향후 100년에 걸쳐 석유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석유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매장량과 수출 규모가 막대하여 석유 산업이 지속적인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음.
- 천연가스 또한 세계 5위의 매장량(213조 입방피트, '07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도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중계무역기지

- 동국은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 낮은 세금,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수입품의 70% 이상을 차지)을 하는 중계무역의 중심지로서 물류거점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특히 석유관련 산업, 은행업 및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 세 가지 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도 GCC 공통관세인 5%로 낮은 수준임. 또한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써 발전하고 있음.

[정책성과]

□ 산업다각화 정책 적극 추진 중

- UAE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조업, 금융서비스, 관광 등 非석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과거 수년간 도로 개보수, 발전소 건설, 대형 송수관 매설, 주거시설 확대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건설업, 금융, 그리고 관광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석유산업이 동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총 GDP의 30%에서 2007년 23%로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 동국은 非석유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의 투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외환통제, 국내 판매 의무 등의 각종 규제가 없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약 30여개의 자유무역지대(Free Zones)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인정되고, 세금이 없으며, 과실송금이 무제한 보장

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2003년 43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7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133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e
경 상 수 지	12,262	27,684	36,468	36,380	29,555
경 상 수 지 / G D P	11.6	20.9	21.4	18.3	12.3
상 품 수 지	27,539	42,762	57,500	64,255	59,283
수 출	90,997	117,287	145,586	180,897	200,420
수 입	63,458	74,525	88,086	116,642	141,137
외 환 보 유 액	18,530	21,010	27,617	77,239	42,239
총 외 채 잔 액	32,755	41,760	53,189	66,497	73,708
총 외 채 잔 액 / GDP	31.1	31.6	31.3	33.5	30.7
D . S . R .	1.4	1.7	2.1	2.6	1.8

자료: IMF, EIU

□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지속

- 상품수지는 유가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와 중동 및 여타지역으로의 재수출 증가에 힘입어, 2004년 275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643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음.

○ UAE의 수출구조('07년 기준): 석유(39.4%), 재수출(34.4%), 가스(4.3%), 기타(21.9%)

- 경상수지도 2004~07년 연평균 31%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한편,

2007년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어 총 GDP의 18.3%인 36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같은 현상은 2008년까지 이어져 총 GDP의 12.3%인 29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도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관광산업의 부진 등의 타격을 받아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154억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경상수지는 약 1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지: 575억 달러('06) → 643억 달러('07) → 593억 달러('08)
 - 소득수지: 57억 달러('06) → 59억 달러('07) → 85억 달러('08)
 - 서비스수지: -180억 달러('06) → -239억 달러('07) → -279억 달러('08)
 - 경상이전수지: -87억 달러('06) → -99억 달러('07) → -107억 달러('08)

[외채상환능력]

□ 풍부한 외환보유액, 낮은 D.S.R.등 외채상황은 양호

- 외환보유액은 오일머니와 대규모 FDI 유입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07년말 외환보유액은 77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42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 FDI: 128억 달러('06) → 133억 달러('07) → 112억 달러('08)
- 총 외채규모는 석유화학 및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의 영향을 받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의 가파른 증대로 인해 GDP 대비 외채 비중은 평균 3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단, 토후국별로는 석유 자원 부재로 해외차입에 의존 중인 두바이의 외채비중이 GDP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부담이 과중한 상황임.
- D.S.R.도 3% 미만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 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GDP: 1,701억 달러('06) → 1,987억 달러('07) → 2,406억 달러('08)
- 총 외채잔액/GDP: 31.3%('06) → 33.5%('07) → 30.6%('08)
- 외채상환비율(D.S.R.): 2.1%('06) → 2.6%('07) → 1.8%('08)

□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 동국은 약 9,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국부펀드를 운용 중에 있으며, 아부다비투자청(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ADIA)의 자산 규모만 8,7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III.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정치 안정]

□ 정치 안정세 지속

- 동국은 7개 토후국이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이자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지도자인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두바이의 지도자인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의 권력 아래 정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7개 토후국은 각기 독립된 국가로서 독자적인 관할구역 및 역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음. 왕족 혈통의 장기 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 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국제관계]

□ 서방 및 주변국가와 원만한 관계 유지

- 동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걸프전 이후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과 방위조약을 체결한 바 있음. 또한, 미군기지의 설치를 허용하고 서방국가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군사적, 경제적으로 서방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Buraimi Oasis, Liwa Oasis 및 Khoral-Udaid 내해 소유권을 둘러싼 아부다비-사우디 간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하였으나, 201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GCC 통화단일화를 앞두고 양국 간 정치적 협력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 이란과는 소유권 분쟁 지속

- 이란은 최근 수년간 UN안보리의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두바이를 주요 무역기지로 활용하며 UAE의 주요 무역파트너로 부상해 왔으나, 정치적으로는 Abu Musa, Greater Tunb 및 Lesser Tunb 3개섬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 사회 및 소요사태

[사회안정]

□ 사회불안 요인 미미

-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유지, 근로자의 처우 개선, 여성의 권익 보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경제난과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가능성은 미미함.
- 총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이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남아있으나, 정부가 자국민 고용비율 확대 등 적정한 권리보호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소요/사태]

- 동국은 기타 인접 중동국가 대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국가로 소요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2등급 (2006. 10) → 2등급 (2007. 10)
- o Moody's : Aa2 (2006. 10) → Aa2 (2007. 7)
- o ICRG : 15/140 (2007. 12) → 18/140 (2008. 11)
- o I.I : 28/174 (2008. 3) → 20/177 (2008. 9)
- o Euromoney : 30/185 (2008. 3) → 28/185 (2008. 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전액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3. 외채상환태도

-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최근 석유화학 및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GDP의 성장이 가파르고 D.S.R.도 3% 미만을 유지하고 있어 동국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GCC 주변국 및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관계가 양호함.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서비스 분야의 투자 위축 등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나, 2010년부터는 경기 회복 및 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성장이 예상됨.
- 상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국의 국별신용등급을 B1 등급으로 평가코자 함.

전문연구원 김예리(☎02-3779-6686)

E-mail : yeliekim@koreaexim.go.kr